



근현대 한국예술사 조망한 연구서

20세기 한국예술의 흐름 짚은 <예연 총서> 나와

20세기 한국예술사를 총체적으로 조감한 <예연 총서>가 나왔다. 한국예술연구소가 기획하고 시공사가 출판을 맡았는데, 이번에 1차분으로 4권의 연구서를 선보였다.

<한국현대예술사대계>(한국예술연구소 엮음)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현대예술사 전체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6권짜리 시리즈물. 이번에 나온 1권에 이어 해마다 한권씩 출간, 2004년에 완간할 예정이다. 각권마다 총론과 문학·연극·영화·미술·음악·무용·만화·건축분야로 나눠 해당분야, 해당시기의 전공자들이 집필에 참여하게 된다. 그 첫 결과물인 <한국현대예술사대계I>은 각 분야 전문가 11명이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까지 예술사를 정리했다.

이 시리즈의 기획과 편집책임을 맡고 있는 이영미 연구원은 “기존 예술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건축과 만화를 포함시킨 점과 40세 전후의 젊은 필진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한국예술사의 흐름을 정리한 책이 1960년대에 나온 한두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리즈는 국내에서 유일한 ‘한국현대예술사 개론서’가 된다.

<한국 작곡가 사전>(한국예술연구소 편)은 한국예술연구소가 지난

1995년부터 3년에 걸쳐 비매품으로 출간했던 <한국 작곡가 사전(I~III)>을 수정·보완해 한권으로 묶은 것이다. 개화기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활동한 작곡가 9백여명의 생몰연월일과 인적사항, 작품목록 등을 정리해 가나다순으로 실었다. 특히 중국 연변대학의 도움으로 북한 거주 작곡가와 중국 조선족 작곡가의 자료를 수록했고, 해외 거주 작곡가까지 망라했다.

<조선예술과 야나기 무네요시>(이인범 지음)는 식민지 시대 조선의 예술을 ‘비에미’로 설명해 한국근대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야나기에 대한 연구서. 야나기의 저술과 연구 전체를 고찰한 지은이는 초기의 ‘비에미론’보다 조선의 도자기같은 민속공예품에 가치를 부여한 후기의 ‘민예론(民藝論)’이 우리 미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통무용을 민족무용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한 <민족무용학>(허영일 지음)은 한국 전통무용의 특성과 전승, 변화과정 등을 일본·하와이·인도·필리핀과 비교·설명했다.

— 김정은 기자



새웃으로 갈아 입은 <달팽이 과학동화>

전문가 감수 거쳐 정확성 높여

<달팽이 과학동화> 시리즈 개정판이 보리출판사에서 나왔다.

5세 이상 어린이를 독자로 하는 이 시리즈는 동물과 식물의 생태, 인체의 신비, 환경문제 등에 관한 과학지식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동화로 엮은 그림책이다.

1권 <나랑 같이 놀자>는 아기 도깨비가 동무를 찾아 곤충마을에 갔다가 서로 다른 신호방법 때문에 같이 놀지 못하고 도깨비 마을로 돌아오는 이야기. 글을 읽고 나면 곤충들이 서로 다른 신호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뒷부분은 곤충의 신호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세밀화를 덧붙여 부모가 읽어주도록 꾸몄다. 윤구병씨(변산공동체학교 교장)가 기획하고, 총 27명의 전문가가 집필과 작화에 참여했다.

<달팽이...> 시리즈 초판은 ‘보리’가 기획·편집해 웅진출판사에서

1994년 전집으로 낸 바 있으며, 지난해 저작권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보리출판사에서 개정판을 냈다. 보리출판사의 남우희 차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재미있는 과학동화책이 별로 없어 아이들이 외국의 과학동화책을 보는 것이 현실”이라며 “<달팽이...> 시리즈는 아이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동·식물을 담은 책으로, 독자들의 반응이 좋아 개정판을 냈다”고 말했다.

출판사측은 개정판을 내면서 동물·식물·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의 감수를 받고, 본문을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말로 바꿨다. 그러나 출판사가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그림이다. 아이들 책이니만큼, 그림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상상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사실에 근거해 그림을 그리되,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나 방식은 다양하게 구성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지점토로 만든 동물을 이용한 입체 그림, 기름종이나 닥종이에 그린 그림들을 주제에 따라 적절히 배치했다. — 김정은 기자